

기도의 계절

구 요비 욥 신부(가톨릭대 영성담당, 프라도사제회 한국 대표신부)

1 년 넘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모색해 온 ‘참 제자 마을’을 위한 임야가 마련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약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의 청원을 들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그 동안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성북동의 ‘말씀 터’에서 1 시간 성체 조배와 주일복음 묵상 나눔, 그리고 미사를 봉헌 하였는데 이제는 10 - 20 여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하며 각자의 삶을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깊이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토요일에 자주 다른 사목적인 일이 겹치곤 하여 이 모임에 빠질 적이 많은데 솔직히 말 하건데 세상 어디에 내다 놓아도 손색이 없는 빼어난 영적인 나눔이라고 확신합니다. 요즈음에 와서 드는 확신인데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공동체적인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i (마태 18,19-20)

우리에게 펼쳐질 앞날에 마냥 장밋빛의 기쁨과 희망만이 아닌 어떠한 시련과 도전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뜻을 되찾고 이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려면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되게 하고 사제가 되게 하고 성인이 되게 합니다. (복자 양뚜안느 슈브리에)

“젊은이여,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너의 기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네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솟아오를 것이다. 바로 이 감정 속에 네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상이, 너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새로운 사상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기도가 교육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i(도스포엠프스끼)

<< 양업 문화 교육원 영성 담당 지도 신부 >>

가을비 내리는 소리를 듣는다. 참으로 오랜만이다. 7월이 되어서야 붉은 보랏빛 꽃을 피우던 싸리나무 잎 사이로 내리는 빗소리는 아름답다 못해 눈이 부시다. 눈부신 저 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소리의 눈부심을 느낄 수 있다니 행복 할 뿐이다. 가장 늦게 잎을 피우더니 가장 빨리 단풍 드는 싸리나무가 벌써 떠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소리인가보다. 고봉산(高峰山)을 처음 만나면서 봄부터 겨울까지 싸리나무를 들여다보는 재미에 빠져 있노라면 나는 가끔 모여와 노래 부르는 여러 종류의 새들과 만난다. 새들은 자기의 날개만큼의 흔들림을 남기고 잠시 날아갔다가 다시 찾아오는데 날개가 큰 새들은 큰 흔들림을 남기고 작은 날개를 가진 새는 작은 흔들림을 남기곤 한다. 가을 아침, 가을비와 가을 새들과 싸리나무 사이에서 문득 가을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순간 빨간 배낭이 내 마음 틈새를 촘촘히 비집고 들어온다. 그 동안 잊고 있었던 혜화동 여름피장에서 들었던 빨간 배낭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난 까닭은 무엇일까? 노랗다 못해 찬란하게 물든 싸리나무 때문일까? 가을비 때문일까? 아니면 떠나고 싶은 가을여행 때문일까? 그 무더웠던 여름 밤, 빨간 배낭은 참 제자 회원이었던 방 카타리나 자매의 상징처럼 들렸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의 배낭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가? 나의 배낭은 무슨 색깔인가? 크기는 어떠한가? 그날 밤 잠깐 목상 해보았던 기억을 떠올려 본다. 카타리나 자매는 늘 그 빨간 배낭 속에 정성과 사랑이 담긴 물건을 넣어 등에 메고 다녔다는 이야기며 그 물건들은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과 함께 나누어졌다는 이야기였다. 지면 관계로 한 이야기만 소개 해본다. 겨울 새벽미시를 마치고 나오는 교우들 중 장갑을 끼지 않은 할머니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빨간 배낭 속에서 모았던 장갑을 꺼내어 나누어 주곤 했다는 이야기에 참으로 따뜻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날 나는 나의 배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깨달았지만 나의 배낭은 남을 위한 배낭이 아니었다. 순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커다란 배낭이었다. 나를 위해 예쁜 빗갈만 골라서 수놓은 배낭이었다. 더 돋보이게 하려고 치장한 배낭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삶의 여정에서 나만을 위한 배낭을 챙기는데 얼마나 급급했던가? 몇 달 전 잠시 일산으로 오기 위해 짐을 꾸리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했던 짐이 집안 구석구석에서 꺼내놓고 보니 스스로 놀라울 지경이었다. 몇 년 동안 쓰지도 않은 물건들이 왜 그리 많은지? 하나만 있으면 족할 것을 더 좋은 것을 위해 욕심 내었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아마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나의 배낭의 모습이라. 그 여름피정 이후 나는 한 동안 나의 배낭의 색깔을 바꾸어야지. 빨간 배낭을 준비해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나만을 위한 배낭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며 새들이 가벼운 흔들림을 남기고 날아가듯 이 가을에 빨간 배낭을 준비하고 가을여행을 시작해야겠다. 저 싸리나무 잎 사이로 내리는 눈부신 가을 빗소리와 함께.

* 방선녀 카타리나 발자취 및 흔적

"돈이든 집이든 제가 가진 것은 모두 하느님께 잠시 빌린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나눠주는 삶을 실천해온 방선녀(카타리나, 57, 서울 구로본동본당)씨가 이 같은 사연과 함께 자신에게 마지막 남아 있던 집과 보험금을 모두 봉헌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다. 위암으로 3년 동안 투병하다 6월 26일 선종한 방씨는 자신이 살던 7000만원 상당의 집을 치매노인요양시설 건립기금으로 기부하고, 저축성 보험과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6640만원을 한마음 한 몸 운동 본부에 기증했다. 방씨가 내놓은 빌라와 보험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사제관 식복사와 건물 청소 일을 하며 평생 모은 재산이다. 구로본동본당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창립 회원으로 25년여 동안 활동해온 방씨는 평생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않고 버려진 옷을 주워 입는 등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도 남 돕는 데는 아끼지 않았다. 번 돈은 모두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고, 틈만 나면 복지시설에 나가 봉사활동을 했다.

고인과 함께 빈첸시오회 활동을 해온 김부형(도미틸라)씨는 "고인은 당신 소유라고는 아무 것도 갖지 않고 평생 이웃사랑을 통해 자신을 비우며 살아온 분"이라며 "신앙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하게 하느님 안에서 사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고인의 장례미사는 6월 28일 서울 구로본동성당에서 구요비(가톨릭대 교수)·유철(구로본동 주임) 신부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으며, 유해는 파주시 광탄면 종로성당 묘원에 안장됐다.

<2007.7.8. 평화신문 기사>

매주 토요일 15시부터
성북동 말씀터에서,
성체 조배, 나눔, 미사가 진행 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구요비 신부, 프라도 국제평의회 위원에

프라도 사제회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한 국제총회에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충실한 협조자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의했다. 또 호베르 다비오(프랑스 루송교구) 신부를 총장에 재선임하고, 한국지부 책임자 구요비(가톨릭대 신학대학 영성부장) 신부 등 4명을 국제평의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프라도 사제회는 복자 슈브리에(1826~1879) 신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해 땀 흘릴 가난한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해 1856년 프랑스에서 창설한 교구 소속 사제들 공동체다. 흔히 재속 사제회라고 불린다. 지난달 25일 폐막된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구요비 신부에 따르면 프라도 사제회는 물질적 가난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결핍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가난'에 주목했다. 회원들은 새로운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거룩한 독서에 기초한 복음연구 심화 △슈브리에 신부의 방법에 따른 교리교육 심화 △복음적 정결의 심화 △사제 및 수도성소 계발 협조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원들은 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총회 대표들은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세계화, 빈부격차, 폭력, 가치상실 등으로 큰 변화를 겪는 현실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교회와 그 가운데서 성령의 징표를 보고 새로운 길을 찾는 교회를 동시에 본다"며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봉사자로 살아가자"고 호소했다. 구요비 신부는 이번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평의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프라도 사제회 회원 수는 약 1,300명으로 세계 59개 국에 퍼져 있다. 한국에는 서약자 80명을 포함해 110여 명이 소속돼 있는데, 이들은 특수한 사도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유 카리스마를 구현한다.

<2007.8.26 평화신문 기사>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 복음적 실천 목표**

주제 ; 삼위일체 신비와 하느님의 가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표**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 터
- **노인 요양원/치매병원**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 터
- **관상 수도원** ;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 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을 위한 기도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과 자매 결연** ; 이웃 사랑의 실천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순수 기부금; 837-21-0285-795 국민은행 양 명신

*조건부기부금; 055-21-0724-082 국민은행 양 명신

(년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20011년12월 상환 예정)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 011-9961-3600 , 031-584-9117

팩스; 031-584-9117, e-mail ; thomyang@inteckor.com

< 신립 및 입급 현황 > 2007. 11.8. 현재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입급액
74	462,732,000	295	232,248,000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참제자마을 입야 봉헌 미사**

11월11(일) 구로역에서 9시 출발하여 정약용선생 및 순교자 정약종의 마재성지 순례 후 오후2시30분부터 입야 현지에서 미사가 봉헌됩니다. 입야 산책 및 떡파티가 있을 예정이며, 설악면에서 구 신부님 형님이신 구요섭 형제께서 저녁 식사를 협찬하셨습니다.

*** 하계 피정 성황리 마쳐**

8월18일-19일 1박2일 일정으로 성북동 말씀 터에서 18일 32명, 19일 26명이 참석하여 구 신부님의 두메꽃 강의와 김 영자 글라라님의 함께하는분, 이정화 요안나님과 김부형 도미딜라님의 방선녀 카타리나님의 발자취와 흔적에 대한 체험발표가 있었습니다.

*** 포항 성모 자애원 방문**

9월 1-2일 1박 2일 일정으로 30여명이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을 방문 하여 20년 동안 이어온 연결고리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고, 정 종주 소피아님의 편지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 금년 초부터 여러 곳을 현장 답사하며 검토하였던 참제자 마을 조성용 임야를 7 월 19 일(목) 계약하여, 가톨릭 명동 신협에서 4 억원을 대출받아, 8 월 28 일 중도금, 10 월 2 일 잔금을 지불하여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으로 등기완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 221/222 번지입니다.

총 89,653 m²(27,167 평) :
관리지역 ; 3,744 m²(1,134 평),
농림지역 ; 85,909 m²(26,033 평)입니다.

*** 전혜은 마리아님 부친상**

전혜은님의 부친이신 전혁하 토마님께서 10월9일 선종하셨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홍순숙미카엘라님의 장남인 오종석요한군과 송정은세실리아양이 10월14일 정동프란치스코성당에서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계 피정이 12월15(토)15시부터 16(일) 17시까지 성북동 프라도 사무실과 말씀터에서 진행 될 계획입니다. 주위에 홍보하여 많은분들의 참석권유바랍니다.

* 참 제자 회원이신 이상운 도미니코/ 김영자 카타리나 부부의 장남인 이정민 비오신부님의 7월6일 서품식 및 7월8일 구로1동성당에서의 첫 미사와 7월16일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에 많은 기도와 함께 참석하여 주신 후원회 회원님들, 또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알찬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구로1동 용하성신부님과 신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비오 신부님은 10 년전 신학생에서 출발하여 부제를 거쳐 이제 사제까지 되셨습니다. 신학교 6년 프랑스 리용 유학 4년동안 사제로서의 길을 닦아 오신 비오 신부님이 사제 본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8월 말 새 사제학교 입교한 후, 금년 말 본당으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구로본동 출신 신부님들의 따뜻한 환영이 더욱 멋져 보였습니다. 특히 우에하라신부님, 용동진신부님, 조영준신부님, 김인석신부님, 이상범신부님 등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사회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신 비오 신부님의 상본 성경 말씀 i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가운데 사셨다i(요한1.14)